

그리스의 노동조합: 긴축정책 시기의 시위와 사회운동

Markos Vogiatzoglou (그리스 에게대학교(University of the Aegean) 박사후 연구원)

■ 도입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미 그리스의 노동조합은 낮은 조직률과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의 연계 약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2010~2014년 그리스가 감행한 긴축정책에 대한 노조의 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당시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자 운동(workers' movement)이 겪고 있는 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단계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 첫째는 전통적 노조 엘리트가 탈사회적(post-social) 상황에서 자체 협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조 구조 개혁 방안을 제안할 능력(또는 의지)이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주로 불안정 노동자들(precarious workers)이 다수를 차지하는 풀뿌리 노조(grassroot union)를 통해, 광범위한 긴축반대 동원(mobilization) 세력과 연계하고 운동(movements) 의제에 노동 관련 요구를 도입하려는 평조합원 노조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노동자, 실직자 및 기타 행위자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 구조를 건설하고자 세력을 결집하는 지역

* 이 글의 원문은 Juergen Groete와 Claudius Wagemann가 편집한 *Social Movements and Organized Labor: Passions and Interests*(London, Routledge, 2018)의 pp.193~210에 "Trade Unions in Greece: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in the Context of Austerity Politics"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차원에서의 하이브리드 실험(hybrid experiment)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그리스 노동조합제도의 특징

단일 총연맹 체제

그리스에는 민간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총연맹(Greek Gener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이하 GSEE)과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공노조연맹(Confederation of Greek Civil Servants' Trade Unions, 이하 ADEDY)이라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노조 총연맹이 조직되어 있다.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ADEDY 조직률은 GSEE보다 높지만(Seferiades, 1999), 노동자 동원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그 이유는 그리스 노동법에 따라 그리스의 공공부문에서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국가가 일방적으로 임금제도를 결정하고 노사관계의 기타 모든 측면을 규제한다)(Ioannou, 2000). ADEDY에 속해 있는 (엄격한 정의에 의한¹⁾) 공공부문 노조들은 통상적으로 스스로가 어떠한 광범위한 노동자 동원을 이끌 동기도 그러한 기회도 없다고 여긴다. 전통적으로 ADEDY는 단순히 GSEE의 동원 결정에 따름으로써, 활동 범위를 단일 부문의 캠페인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관행은 공무원들의 임금이 삭감되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수천 명 해고되었던 경제 위기 시기에도 유지되었다.

GSEE에는 2백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으며(GSEE, 2013), 이는 OECD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 노동인구의 44.7%에 달한다(OECD, 2014). 이 수치들을 민간부문의 노조조직률 지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GSEE가 체결하는 전국 단위의 단체협약은 별도의 기타 단체협약이 체결, 적용되지 않는 모든 고용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GSEE는 민간부문 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가 추산한 그리스의 노조 조직률은 2011년 기준으로 25.4%에 그친다(OECD, 2013). ‘유럽노사관계연구소(European

1) 준공기업(semi-public companies), 민영화된 기업 및 국가 소유의 공공 인프라 기업은 GSEE에 속한다.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는 그리스의 노조조직률을 약 28%로 추정하면서, “2007년 자료에 근거하면 민간부문 노조조직률은 18% 또는 약 472,304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반해 공공부문 노동자 중 조합원 수는 311,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공공부문 고용의 약 60%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Stamati, 2013).

GSEE의 조직형태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단위노조²⁾(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 직종별 노조)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별 조직인 노동센터(Labor Center)와 산별/직종별 노조 연맹들이 2단계에 위치하며, 3단계에는 GSEE 조직³⁾이 자리하고 있다(GSEE, 2013).

정치적 다원성

GSEE는 그리스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유일한 노동조합 총연맹으로서, 원래부터 정치적 다원성(pluralism)을 표방하며, 원외 좌파(extra-parliamentary left)에서부터 극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시기인 경제위기

<표 1> GSEE 집행부 구성 현황(2013년 3월 기준)

노조 분파	소속 정당	대의원 수	집행간부 수
PASKE	PASOK (사회민주주의)	146	19
DAKE	ND (우익)	103	11
DAS-PAME	KKE (공산주의)	94	10
AP	SYRIZA (급진 좌파)	44	5
EMEIS	없음 (온건 좌파)	32	3
기타	원외 급진 좌파	4	0
계		423	45

자료 : GSEE 보도자료(문서번호 없음), 2013년 3월 24일.

2) 편집자 주: 단위노조는 법적조직으로 조합원 최소 21명을 기준으로 조직된다. 과거에는 주로 지역단위에서 직종별로 조직되었으나 현재 기업단위로 조직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기관의 지부인 경우도 있다.

3) 편집자 주: 150여 개의 2단계 기관(73개 산별/직종별 연맹 및 81개 지역별 노동센터)들이 GSEE에 소속되어 있다(2020년 2월 말 GSEE 홈페이지 https://gsee.gr/?page_id=41). ADEDY의 경우 주로 부처별로 조직된 48개 연맹이 2단계 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다(2020년 2월 말 ADEDY 홈페이지 <https://adedy.gr/omospondies>)

로 인한 긴축이 진행되던 2013년 3월 당시 GSEE 집행부(Administrative Board)⁴⁾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당시 여당이었던 PASOK과 ND에 소속되어 있었던 노조 분파들은 전체 45석 중 확실한 다수인 30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GSEE의 의사결정 절차에는 소수 분파들과의 심의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GSEE의 정치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단위노조 및 2단계 노조들은 GSEE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 노조는 어느 시점이든지 GSEE의 동의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시위를 동원(mobilize)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대적 자율성은 그리스의 노동운동 전통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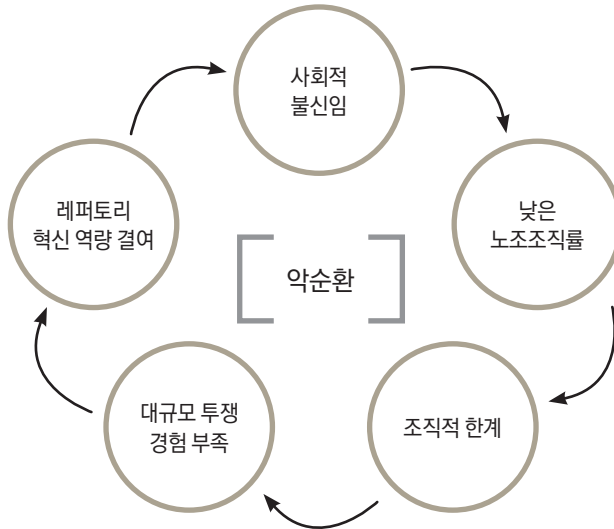
■ 노조 엘리트 : 조직적 한계와 사회적 불신임의 악순환

긴축정책에 대한 노조의 대응

2010년 4월, 그리스의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 소위 트로이카로 구성된 채권단과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하였을 당시, 곧바로 장기적이며 혹독한 긴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실제로, 노조들은 그리스 기준으로 볼 때 전통적인 레퍼토리를 사용하며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응하였다. 주로 사용되었던 전술은 GSEE가 결의하고 ADEDY가 지지한 전국 차원의 24시간 총파업이었다. 첫 총파업은 2010년 5월 5일에 단행되었고, 이후로 같은 해에 11차례 더 실시되었다. 2014년까지 총 50회 이상의 24시간 총파업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동원으로 얻은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였다. 4년 동안 그리스 정권이 두 차례 바뀌고 (당시 양당 체제였던) 그리스 정치체제 내 두 주요 정당 중 하나가 정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긴축 조항이 담긴 법안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4) GSEE의 총회 결과(2013년 3월).

[그림 1] 노조의 조직적 한계와 사회적 불신임의 악순환



자료 : 필자 작성.

악순환에 대한 이해

[그림 1]의 역학관계는 경제위기 훨씬 이전부터 나타났던 노조 엘리트에 대한 사회적 불신임과 노조의 조직적 한계를 보여준다. 그리스의 노동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24시간 총파업은 실질적인 유용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실제로 노사관계가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기에든 연간 2~3차례의 총파업은 예사였다. 경제위기 기간 중 총파업 횟수를 늘린 이러한 양적인 변화를 보면 GSEE가 자체 레퍼토리를 쇄신할 능력과 의지가 모두 없었다고 간주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낮은 노조조직률 외에도, 그리스의 노조들은 대규모 투쟁 경험도 부족했다. 장기간 여러 산업 노조들이 참여한 파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으로(Ioannou, 2000), 이 시기에는 노조의 힘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그 이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노조 활동은 이른바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데 국한되었다(Daskalakis, 1995). 게다가 사회 자체도 노조 엘리트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동원을 저해하는 요인(disincentive)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만이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거의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Laoutaris, 2011).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GSEE의 지도부는 경제위기 시기의 급변하는 사회정치적 상황에서는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왜 노조 엘리트들이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강한 분노를 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하지만 그리스 노동조합제도의 다원적 특성상 일반 조합원들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voice)'는 '출구(exit)'를 찾지 못했다(Dowding & John, 2000).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와 사회운동조직(SMO)들은 앞서 언급한 집단 행동 레퍼토리의 질적 변화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였다. 1년간(2010년 5월~2011년 5월)의 '전통적' 동원 노력이 실패한 후에, 그리스의 긴축반대 운동은 자체 전략 및 전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아랍의 봄(Arab Spring)⁵⁾과 '스페인의 15M 운동⁶⁾의 '광장 점거' 모델을 도입하고 조정하여 적용하였으며(Sergi & Vogiatzoglou, 2013), 그다음으로 이른바 '사회적 연대구조' 확립에 자원을 투입하였다(Mattoni & Vogiatzoglou, 2014). 이러한 연대구조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여러 실험적 프로젝트의 원재료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실험적 실습실: 그리스 노동운동의 미래 제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풀뿌리 노동조합 : 긴축에 반대하는 불안정 노동자들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조

1990년대 중반 그리스 노동시장에 유연한 고용계약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전통적으로 취약한 그리스 복지제도와 맞물려,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집중되어

5) 편집자 주: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반정부 시위로 '아랍의 봄'의 여파는 중동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확산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6) 편집자 주: 2011년 5월 15일 청년층이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으로 긴축정책안과 정당정치 부패에 반발하여 스페인 마드리드 솔 광장을 점거하고 시작되었으며 이후 스페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산되어 유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개최되었다.

있는 새로운 노동자 범주가 생겨났다(Triantafyllou, 2008). 이와 같은 불안정 노동력은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직무가 새로 생겨난 것이거나 유연한 노동이 지배적인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통신, 외식서비스, 청소서비스, 택배/배송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조직화 절차가 시작되었다.

기업별 및 부문별로 활동하는 이러한 풀뿌리 노조의 조합원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노조들을 ‘불안정 노동자 노조(Precarious Workers’ Unions, 이하 PWU)’로 칭하기로 한다.

PWU는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일련의 흥미로운 행동을 전개하였다. PWU의 활동에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2009년 초에 발생하였는데, 아테네를 거점으로 하는 단위노조들이 수평적 조직인 ‘단위노조조정기구(Primary Unions’ Coordination, Syntonismos Protovathmion Somation)’를 설립하였던 것이다(Vogiatzoglou, 2011). 이 조정기구는 상사의 심복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 당한 여성 이민자 노조활동가였던 콘스탄티나 쿠네바(Konstantina Kouneva)를 지지하는 연대 캠페인을 결성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Kambouri & Zavos, 2010). 아테네를 거점으로 한 이 조정기구에 이어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조직들이 생겨났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GSEE 조직을 벗어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려는 대대적인 노력이었다. 여기서 GSEE 조직을 벗어난다는 것은 GSEE를 적대시한다거나 공식 노동조합제도 밖에 위치한다는 뜻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PWU 지도부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의견 표명에서부터 총연맹의 전략과 운영방식(modus operandi)에 대한 전면적 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PWU 대다수는 GSEE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PWU의 제도화를 통해 기업별 또는 부문별 단체교섭 참여가 가능하며,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PWU의 긴축반대운동 참여

PWU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구성원들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반면, 그 지도부와 설립자들은 과거에 상당히 많은 운동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리스의 다양한 사회운동조직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전의 한 연구에서

필자는 PWU가 전통적인 노동조합보다는, 다른 PWU나 노동과 무관한 사회운동조직과 협력하는 데 더 열의를 보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Vogiatzoglou, 2011).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긴축반대 운동이 등장하면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으로 아테네 조정기구는 노조들로 구성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고, GSEE와는 별도로 총파업 시위를 선언하고 총파업을 위한 별도의 집결지를 정하였다(aformi, 2010). 이는 잠재적 시위자들에게, ‘친정부적’이고 비효과적인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는 GSEE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긴축반대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좌익 정당, 학생 조합, 심지어 NGO를 포함한 많은 다른 조직들이 PWU의 선언을 바로 수용하였다. 그 성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PWU의 집결지에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의 시위자들이 모임으로써 모든 긴축반대 행진에서 PWU가 선두에 섰으며, 이에 반해 GSEE가 집결지로 정한 광장에는 1만 명도 채 모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PWU의 구성원들은 노동과 무관한 활동에도 참여하여 해당 운동의 운영진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적 방법을 제공하였다. 신타그마 광장(Syntagma Square) 미디어팀을 꾸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시청각 노동자들의 단체인 ‘디아코프테스(Diakoptes)’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통신업 노조들에 속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들과 네트워크 기술자들은 점거한 광장에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했다. 아테네의 ‘웨이터와 요리사 노조’는 2010년에 최초로 ‘파업 수프 주방(strike soup kitchen)’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본보기로 오늘날 많은 단체들이 빈곤층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풀뿌리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이와 같이 고무적인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PWU는 활동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 풀뿌리 노조들이 해결해야 할 주요 난제의 하나는, 어떻게 광범위하고 유연한 노조 간 조직(inter-union organization)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내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가이다.

PWU는 자체 운동 레퍼토리를 채택, 적용하는 데 있어 GSEE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련의 ‘전통적인’ 쟁의행위를 넘어서는 레퍼토리를 고안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PWU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대체로 파업 준비, 피케팅, 노동자 대상 정보자료 배포 등의 사업장 단위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PWU의 대외적 활동은 시위나 파업 참여를 넘어서는 경우가 좀처럼 없다. 또한 2008~2009년 조직단위 수 및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Vogiatzoglou, 2011)한 이후로는, 여러 경우에 있어 그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높은 실업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2013년의 경우, 전 연령층의 실업률은 약 28%였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60%를 넘어섰다), 높은 실업률은 조직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끝으로 PWU의 조직 형태가 많은 수의 실업자들을 동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음에서는 이 난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리스 노동운동의 활동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실험적 실습실 : 그리스 노동운동의 미래 제시

그리스 노동운동에 의해 촉진된 일련의 하이브리드 관행을 실험적 실습실(experimental laboratories)로 칭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실험적 실습실의 흥미로운 특징은 둘 중 어느 노조 활동이 그리스 사회가 처한 비상 상황에 더 적합한지를 놓고 논쟁하는 대신, 가령,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힘의 관계와 같이 자명한 개념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노동자들의 조직 형태 및 내용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면서 노동조합주의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실험적 실습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노동자 클럽(Workers' Clubs / Ergatikes Leshes)’으로, 경제위기 시기에 아테네의 여러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생겨났다. 1990년대 중반 미국 ‘노동자 센터(Workers Centers)’⁷⁾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동자 클럽은 사업장의 한계를 넘어 노동투쟁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자

7) 편집자 주: 노동자 센터는 미국 노사관계법(NLRA)의 단체교섭 구조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노조 프론트그룹(front group)이다. 많은 노동자 센터가 노동조합과 연계되어 있고, 전통적인 노동조직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노동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체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클럽의 유연한 구조와 지역 중심 성향 덕분에 전통적인 노조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두 집단인 영세기업 노동자와 실업자들을 클럽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토록 권유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직원들이 점거하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들(occupied and recuperated companies)이 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테살로니키(Thessaloniki)에 위치한 VIOME 공장과, 그리스 여러 도시에 위치한 ‘열린 공영 TV 및 라디오(Open Public Television and Radio, 이하 ERT)’를 들 수 있다. 두 기업 모두 각 사용자에게 의해 폐업이 된 후에 노동자들의 경영하에 사업 활동을 재개한 경우다. VIOME는 자사 제품을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ERT의 직원들은 2013~2015년에 이전 정부가 공영 방송국을 폐업하면서 해고된 이후로, 아테네 본사의 퇴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전역의 여러 스튜디오를 통해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하였다. 공영 방송국인 ERT는 폐업한 지 정확하게 2년 만인 2015년 6월,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SYRIZA)’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하에서 업무를 재개하였다. 물론(200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을 고려하면) 국제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에 의한 자율 관리 사업장(self-managed workplace)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리스 노동운동을 논할 때는 이전에 그러한 발전된 방안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로, 경제위기 시기에 설립된 수십 개의 협동조합(cooperatives)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협동조합들은 농산품에서 컴퓨터 수리, 그리고 택배 서비스에서 주점 및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는 과거에 이러한 협동조합 경험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초불안정(super-precarious) 집단인 여성과 이주 노동자 조직화

콘스탄

티나 쿠네바를 기리는 연대 캠페인이라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그리스의 반불안정(anti-precarity) 운동 활동가들의 문제제기에 있어 젠더 문제는 절대 중점 이슈가 되지 못했

다. 한편으로 이는 적어도 초기 동원단계에서 그리스 PWU가 노동권 이슈에 있어 비교적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취했으며 그리스 페미니스트 운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쿠네바 사건은 그리스 노동시장에서 젠더와 불안정성의 밀접한 연관성에 관한 유용한 견해와 기고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반해 이주민들의 조직화에 있어서는, 그리스의 PWU는 상대적으로 생산적이었으며 때로는 성공적이었다. 아테네, 테살로니키,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일부 비도시 지역에는, 미카니오나(Michaniona)의 어민 공동체와 마놀라다(Manolada)의 농업노동자 노조와 같이 영역별로 (노사분쟁에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생겨난 단체들뿐만 아니라, 아테네 이주민 노조(Athens' Union of Immigrants)가 존재한다. 통신 부문에서 활동하는 PWU들은 해당 기업들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들(1세대 또는 2세대)을 조직화하는 문제에 자주 직면한다. 노조의 개입은 보통 차별금지를 명분으로 이루어진다. 끝으로, 외식업 부문의 노조들(아테네 웨이터 및 요리사 노조(Waiters and Chefs Union of Athens), 청소년 배달원도 포함하는 오토바이 배달기사 노조(Motorcycle Drivers' Union) 등)은 이 부문의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개별 노동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연대 활동을 실행하여 왔다(Yabouranis, 2007). 여기에는 사용자가 사회보장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도 포함된다.

■ 과제와 미래지향적 조치

요약하자면 이 글에서 필자는 노동운동조직과 사회운동조직들이 현대 그리스의 암울한 사회정치적 상황 속에서 서로의 의제, 집단행동 레퍼토리, 조직화 전략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는지 (또는 저해하였는지) 소개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고무적인 실증적 식견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방안들과 실험적 프로젝트 중 어느 것도, 현재의 형태로라면, 그리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인 노조들은 이미 오래전에 혁신 잠재력을 소진하였고 급변하

는 시기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 보였다. 노조 고위간부들은 새로운 환경이 노동조합제도에 어떠한 과제를 부여하는지 이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는 꺼려한다(Lanara, 2012의 분석 내용 참조, Lanara는 GSEE의 국제관계담당자임). 풀뿌리 노조 조직들은 실업자들에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대적 노동환경으로 인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노동자 클럽'은 아직도 그 수가 적고, 스스로 다른 노조에 보완적인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사례에 비춰볼 때, 노동자 점거/자율경영 기업과 협동조합은 설령 살아 남는다 하더라도 생산 체제의 주변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실험적 프로젝트의 다수는 노동법에서 법적 형태나 활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의 노동조합제도 개혁은 단지 '하의상달(bottom-up)'의 문제가 아니다. 공고한 전통적 노조 구조를 깨고 일관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가장 흥미로운 실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필자는 공식적인 노동조합 체계가 소멸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쇠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정부나 사용자는 물론이고, 주요 이해당사자라면 상황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공식적 대표체제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약한 노조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간 그리스 노동분야의 성격을 규정짓는 (a) '악순환'의 존재와 (b) 사회적 대화 제도의 부재를 감안하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노조들이 사회적 프로세스에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약화되거나,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설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조와 사회운동의 상호연관성이 다면적 프로세스와 고도의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Aformi(2010), "Grassroots' unions coordination: An interview with Panagiotis Sotiris," Available at: <http://aformi.wordpress.com/2010/06/17/> (accessed 16 July 2010)
- Daskalakis D.(1995), *Collective autonomy in the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The collective bargaining experience in European countries*, Thessaloniki: Sakkoulas.
- Dowding, K. and John, P.(2000), "Exit, Voice and Loyalty: Analytic and Empirical Developmen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4), pp.469-495.
- GSEE(2013), "The structure of GSEE," Available at: www.gsee.gr/left_menu_files/left_m_p2c.php?p_id=6&p2_id=1 (accessed 16 July 2010).
- Ioannou, C.(2000), "Change and Continuity in Greek Industrial Relations: The Role and Impact on Trade Unions", In: J. Waddington and R. Hoffmann, eds. *Trade Unions in Europe: Facing Challenges and Searching for Solutions*. Brussels: ETUI, pp.277-304.
- Kambouri, N. and Zavos, A.(2010), "On the frontiers of citizenship: Considering the case of Konstantina Kuneva and the intersections between gender, migration and labour in Greece," *Feminist Review* [e-journal] 94, pp.148-155.
- Lanara, Z.(2012), "Trade Unions in Greece and the Crisis. Bonn: Friedrich Erbert Stiftung," Available at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9012.pdf> (accessed 1 April 2014).
- Laoutaris, G.(2011), "The Blurry Image of Local Administration," Available at: <http://laoutaris.wordpress.com/tag/δημοσκόπηση/> (accessed 14 December 2013).
- Mattoni, A. and Vogiatzoglou, M.(2014), "Today we are precarious: Tomorrow, we will be unbeatable: Early struggles of precarious workers in Italy and Greece," In: D. Chabanet and F. Royall, eds. *From Silence to Protest: ... on Weakly Resourced Groups*, Farnham, England: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pp.67-82.
- OECD(2013), *Population, employment (national concept), employment by industry (domestic concept): Greece*,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_____ (2014), OECD.StatExtracts, Available at: <http://stats.oecd.org> (accessed 1 July 2014).
- Seferiades, S.(1999), "Low Union density amidst a conflictive contentious repertoire: flexible labour markets, unemployment, and trade union decline in contemporary Greece," ETUI Working Paper No.99/6. Florenc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 Sergi, V. and Vogiatzoglou, M.(2013), “Think Globally, Act Locally? Symbolic Memory and Global Repertoires in the Tunisian Uprising and the Greek anti-austerity mobilizations,” In: C.F. Fominaya and L. Cox, eds. *Understanding European Movements: New Social Movements, Global Justice Struggles, Anti-Austerity Protest*. London: Routledge
 - Stamati, A.(2013), *Greece: Industrial relations profile*, Brussels. Available at: http://www.eurofound.europa.eu/eiro/country/greece_3.htm (accessed 2 December 2015).
 - Triantafyllou, C.(2008), “Precarious work in Greece, in Discussion on Precarious forms of employment,” In: Network of Refugees' And Immigrants'. Social Support, ed. *Discussion on Precarious forms of employment*, Athens: Network of Refugees' And Immigrants' Social Support. P.12.
 - Vogiatzoglou, M.(2011), *Precarious Workers' Unions in the Greek Syndicalist Movement*. University of Crete.
 - Yabouranis, C.(2007), “Syndicalism Gets Organized among Workers on Motorbikes. Labor Left,” Available at: http://www.dea.org.gr/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53&Itemid=99999999 (accessed 2 December 2015).